다산포럼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권 순 긍
세명대 명예교수
전 한국고전문학회 회장

영국 시인 T.S.엘리엇(Eliot, 1888~1965)은 '황무지'에서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 불렀다. 그 시의 첫 구절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로 시작된다. 죽어 없어질 줄 알면서도 생명을 탄생시키기 때문이리라. 해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겨울이 오히려 따뜻했다고 말한다.

묘하게도 우리의 근대사를 살펴보면 4월에 '잔인한'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음을 본다. 해방 후 1948년 제주 4·3을 시작으로 1960년 4·19를 지나 2014년 4·16 '세월호'까지 우리 역사의 처참한 구비들을 4월이 장식하고 있다.

제주 4·3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1947년 3월 1일, 기념식을 하던 민간인에게 총을 난사해 여섯 명이 죽고 여덟 명이 중경상을 입는 '3·1절 발포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분노한 도민들이 총파업을 결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미군정 경찰들은 제주도를 '빨갱이의 섬'으로 규정하고 무자비한 탄압과 2500명에 이르는 무고한 양민들을 구속하였다. 더욱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10 선거의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여기에 맞서 1948년 4월 3일 경찰서를 습격하는 무장봉기가 일어나면서 드디어 4·3이 터진 것이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 후에는 육지에서 파견된 군경과 서북청년단에 의한 도민들의 탄압은 더욱 심해져 당시 제주도민의 10%인 3만 명이 군경의 총에 사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성이 작동을 멈춘 학살과 광기의 시대였다.

제주 4·3의 억울한 희생은 1989년 4월 3일에 와서야 41년 만에 처음으로 '4·3 추모제'를 지낼 정도로 금기시됐었다. 엄혹한 군사정부 시절이었던 1970년대부터 줄기차게 4·3을 소설화한 현기영은 '목마른 신들'에서 4·3의 슬픔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슬픔이란 대체로 눈물과 한숨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말과 글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4·3의 슬픔은 눈물로도 필설로도 다 할 수 없다. 그 사태를 겪은 사람들은 덜 서러워야 눈물이 나온다고 말한다."

4·19는 또 어떤가? 이른바 3·15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로 시작하여 마산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르자 분노는 전국적으로 번지게 되었다. 특히 서울에서 4·18 고려대 시위가 정치 깡패들에 의해 습격당하자 이에 격분한 많은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4월 19일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피의 화요일'이 시작됐다. 경무대로 진격하던 185명의 무고한 학생들은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죽어갔다. 결국 4월 25일 300명에 가까운 대학교수들까지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골자로 하는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기에 이르렀고, 다음날 대통령은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터진 것이다.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 승객 476명을 실은 세월호가 인천에서 제주도를 향해 출발했다. 탑승자는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나는 경기도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을 비롯한 일반 탑승객 74명 등 모두 476명이었다.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조류가 거센 전남 진도군 앞바다 맹골수도에서 세월호는 급격하게 변침을 했고, 배는 곧 중심을 잃고 기울어져 표류하기 시작했다. 8시 51분 단원고 학생들이 119에 구조요청 신고를 했다. 배는 침몰하고 있었지만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만 계속 흘러나왔다. 9시 35분 해경 함정 123정이 도착했지만 사람들을 구조하려는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았다. 선장을 비롯한 기관부 선원 일곱 명이 승객을 버리고 탈출해 구조됐다. 침몰 전까지 172명이 구조됐지만, 10시 30분께 침몰한 이후에는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했다. 침몰 사망자는 295명, 실종자는 아홉 명으로 생때같은 304명의 젊은 생명들이 바다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른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 2014년 11월 19일에 제정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못했다. 그러니 '세월호'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제는 이런 역사의 횡포나 과오는 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주 4·3의 슬픔을, 4·19 혁명의 함성을, 그리고 4·16 '세월호'의 아픔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기억을 해야만 '역사'는 사라지지 않고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이제는 눈을 부릅뜨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부활'의 계절도 4월이지 않은가!

김하림의 차이나4.0

바다 위의 도시, 상하이의 빛과 그림자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명예교수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상하이의 코로나 확산 상황이 심각해서 도시가 전면 봉쇄에 들어갔고, 이후 봉쇄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어 보름 만에 절반 정도의 지역은 해제되었다고 한다.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의 봉쇄는 상하이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중국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와 무역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봉쇄가 장기화되면 상하이의 경제는 6% 가량 위축되고, 이는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의 2%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500만여 명이 살고 있는 도시를 봉쇄한다는 것은 강력한 통제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경제적 피해, 정치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강력한 봉쇄 정책을 실시하는 데 대해 아무리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진해 온 중국 당국이라 해도 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로 인해 여러 추측들이 대두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시진핑 주석이 3차 연임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추측이다. 즉 태자당의 대척점에 있는 상하이방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상하이 봉쇄 이전부터 이미 시주석의 3연임은 명시화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는 2021년 11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19기 6중전회에서 통과된 '제3차 역사결의'에서 드러난 바 있고, 올가을에 열릴 예정인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결정될 때에 총서기로 재선출될 것으로 오래 전부터 예상되고 있었다.

중국인들은 흔히 '근대 백 년 중국의 역사를 알려면 상하이를, 천 년의 역사를 알려면 베이징을, 오천 년의 역사를 알려면 시안을 방문하라'고 말한다. 외국의 정상들이 처음 중국을 국빈 방문할 때면, 맨 처음 서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에 상하이를 거쳐 귀국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코스이다. 중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시안에서 느끼게 하고,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주눅이 들게 한 다음, 베이징의 위용을 과시하고,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상하이의 발전된 면모를 보고 귀국하게 하는 셈이다.

시안이나 베이징과 비교하면, 상하이는 가장 늦게 도시가 형성되었다. 원나라 때 정식으로 상하이현이 설치되었으나, 청나라 중엽까지 인구는 대략 30만 명 정도에 불과한 한적한 포구였다. 상하이가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아편전쟁(1840)의 패배로 인한 부산물이다. 1942년 난징조약이 영국과 청국 사이에 체결되고, 상하이가 개항되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초대 영사였던 조지 볼브와는 황포강 연안의 황막한 갯벌 땅을 영국 상인들이 거주하면서 장사할 수 있는 용지로 확보했고, 이곳이 점차 영국 조계지로 형성되면서 근대적 도시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후 상하이는 급속하게 서구 문명이 수입되고, 산업도시, 국제도시가 되었다. '십리에 걸쳐 서양 상점이 늘어서 있는' 동양의 파리이자 극동의 진주라는 명칭이 이를 대표한다. 이러한 발전으로 인한 노동자층이 형성되어 노동운동의 중심지이자 중국 공산당이 1차 당대회를 개최한 도시이기도 하다.

상하이를 통해 중국은 처음으로 19세기 유럽의 치외법권, 군함 외교, 외국인 조계지와 침략이라는 경험적 교훈을 받아들였다. 상하이는 전통 중국 문명과 서구 문명이 공존하는 곳이었고, 양자의 접촉 결과와 중국의 반응은 바로 상하이에서 맨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고, 현대 중국은 바로 여기에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찍 공·상업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교활하고 오만하고 잇속에 밝고 이익만 챙기고, 자기 멋대로이고 배타적이고 지도자들을 아니꼽게 보고, 정치에는 무관심하고 단체에 대한 귀속 의식이 없으며, 냉담하고 소심하며 유행을 좋아하고 가볍고 경솔하고 이기적인 속물들"이라는 비판을 상하이인들은 받기도 한다.

그러나 상하이인들은 글로벌 마인드와 비즈니스 마인드가 가장 선진적이고, 기존 관념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으며, 도시인의 기질이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상하이가 오늘날 일인당 소득 2만 불 이상을 자랑하는 경제 수도로 성장한 것은 '개방은 생존과 진보이고, 폐쇄는 사망과 후퇴'라는 관점을 실천했기 때문일 것이다. 봉쇄로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될 것인지는 의문이나, 상하이가 다시 개방의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

기 고

상전이 벽해 되어도 비켜설 곳이 있다

황 옥 주
수필가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등등하다. 방역도 백신도 극값에 이르지 않나 싶다. 조선시대에는 무서운 호랑이도 착호갑사(捉虎甲士)를 양성하여 잡았다는데 코로나를 잡을 갑사는 없는 것인가? 밤샘을 갈이하며 환자들을 보살피는 의료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고나면 "날 잡아 봐라"다.

어디다 맘을 맡길 곳이 없다. 본마음은 아닌데, 의초롭게 지냈던 친구들마저 소원해져 간다는 느낌이다. 서로가 조심스러워 부르지도 못하고 불러 주지도 않는다. 인내의 열매가 값진들 억지 단절과 고립은 수행승의 고행과는 다르다.

친좁은 사이에 전화마저 뜸해지고 대화 알맹이도 공허하다. "어떻게 지내나?" 묻고 나면 뒷말이 궁하다. "자네는?" 돌아온 답도 싱겁다. 늙어가는 마당에 신명난 이야기도 시원찮은데 맥 빠진 푸념뿐이다. 춘추시대는 제사 지내다 세월 보내고, 전국시대는 싸움질로 세월 보낸다더니 이 시대는 코로나 얘기로 세월이 흘러간다.

언제부턴가 광주 지역만 해도 확진자 수가 만 명을 넘었었다. 물경 다섯 자리 숫자다. 한 자리 숫자에도 떨었던 것을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는 공포였다. 요즈음은 네 자리에서 머문 듯싶어 그나마 다행이라 할지 모르겠으나 다섯 자리 숫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불안키는 마찬가지다.

봄이라고 아파트 뜰에 벚꽃이 한창이다. 꽃들이 웃을 때 같이 웃고 싶은 기분이 아니다. 친구들은 어떨까? 그들의 삶인들 별반 다를 것 같지가 않다. 친구의 생활이 내 생활이고, 내 일상이 친구의 일상일 터다.

며늘애가 휴대폰으로 보내준 스타박스 쿠폰 차를 같이 마셔줄 사람이 없어 단 한 차례 혼자서 마셨을 뿐인데 3개월의 유효 기간이 지나 버렸다. 고마운 정이야 남아있지만 돈은 가치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래저래 노인의 삶은 잘 마른 불쏘시개처럼 푸석푸석하다.

코로나 심술이 벌써 삼 년째다. 너무 오랫동안 일상이 뒤틀려 삐걱댄다. 국가도 우왕좌왕이다. K-방역을 자랑으로 내세우던 때는 언제고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산모가 생겨나고 어쩌다가 환자가 응급실 바닥에서 투석을 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는지 서글프다. 중증 확진 어린애가 이송 중 숨졌다는 소식도 우리나라 얘기다. 위급한 한 살배기가 병원에 격리실이 없다고 거절당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며칠 전에는 확진자 세계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사가 나왔다. 가까운 아시아 주요국들과만 비교해도 압도적 1위란다. '압도적'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일 양이면 두려운 일이다. 일본의 네 배가 넘고, 후진국 취급받은 인도의 일곱 배, 방역 모범국인 대만에 비하면 물경 231배나 된다니 진짜로 압도적이다. 물론 국가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데 국민의 불평 소리가 높으면 답답할 것이다. 그렇다고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국무총리의 말이 무색하다. 국민의 희생을 주요국의 10분의 1 이하로 최소화했다는 설명에는 그야말로 기가 찰 일이다.

어려움이 이어지다 보면 '정점'이나 '고비'란 말만 들어도 반갑다. 뭔가 괜찮을 것 같은 희망이 희붐하게 다가서는 것 같아서다. 그 예측이 빗나갈 때는, 더구나 몇 번이나 헛바퀴 돌고 나면 더 허무하다.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얘기가 얼핏 설핏 스쳐간다. 힘없는 서민들은 국가만 바라보고 산다는 걸 기억해주면 좋겠다.

인간의 무기력은 중병이다. 방구석에 박힌 도피가 코로나를 이기는 바른 해법은 아니리라. 백신이면 다 해결된다는 낭보가 퍼질 날을 기다려 본다. 기다림이 희망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희망은 "잠자고 있지 않는 인간의 꿈"이다. 희망이 필요 없다면 절망은 더더구나 필요 없다. 희망은 빛이다. 시인이 아무리 석양빛이 아름답다 노래해도 아침 빛살만큼은 못하다.

희망의 색은 녹색이다. 하루가 다르게 산천이 푸르러져 가고 있다. '상전이 벽해 되어도 비켜설 곳이 있다'는 속담을 가슴에 안고 희망 속에 살아 볼 일이다. 머지않은 내일에 웃음소리가 창문을 넘을 날이 오리니. 그런데 가뜩이나 '전염력 더 세진 XE 변이'가 무슨 변통을 일으키려는지 미리부터 머리가 어지럽다.

社 說

현대산업개발 철거·보상 협의 적극 나서야

내일은 현장 근로자 여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하지만 건물 철거 여부와 입주 예정자 및 인근 상인들에 대한 보상 협의는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서구, 입주 예정자들은 무너진 201동은 물론 잔존 건물 안전 진단과 철거 여부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철거 계획 승인권자인 서구는 절차상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해야만 철거 면적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입주 예정자들은 안전진단 없이 사고 동(棟)을 포함한 여덟 개 동 전체를 철거한 뒤 재건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단지 전체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안전진단 시행 결과가 자칫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사고 동 외에 일곱 개 동은 철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보상 여부도 제자리걸음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지연뿐 아니라 안전 문제, 집값 하락, 정신적 충격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고 현장 인근 상인들도 착공 이후부터 지금까지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지난 1월 붕괴 사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안전점검을 전제로 하기는 했지만 완전 철거와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입주 예정자와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늘 입주 예정자 847세대의 피해 상황과 요구 사항 등을 취합해 서구청에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같은 날 서구청과 사고 현장을 찾아 붕괴 건물 처리 및 피해 보상 등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조속한 사태 수습과 신뢰 회복을 위해 철거 및 보상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건강권 실질적 보장 대책을

오는 20일로 '장애인의 날' 42돌을 맞지만 광주·전남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동권과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시내버스는 법정 저상버스 의무 대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올해 계획대로 친환경 저상버스 45대를 추가 도입하더라도 전체 시내버스 중 34%(999대 중 348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명시된 '운행 버스의 2분의 1'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에 따라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마음 놓고 외출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장애인들에게는 건강권을 누릴 환경도 구축돼 있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 광주시 거주 장애인 중 5.9%는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엄연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음에도 건강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단체 등이 그동안 줄기차게 결의 대회를 열고, 최근 광주시와 각 정당 광주시장 후보 캠프에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그동안 숱한 장애인 정책을 내놓았지만 열악한 이동권 확충은 더디기만 하다. 실행력과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병원과 복지 공간을 부담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인프라를 서둘러 확충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이 불편 요소로 꼽는 건물 출입 계단, 대중교통 수단 등 편의시설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취약 시설을 보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복지'가 아니라 '의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거리 두기 757일

지난 2020년 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원인 불명 폐렴'이 집단으로 발생해 조사 중이라는 뉴스를 접할 때만 해도 '강 건너 불'이거니 여겼다. 그러나 불똥은 한 순간에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번졌다.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는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없어서 안 될 필수품이 됐다. 시간이 흐르며 생소하던 자가 격리와 밀접 접촉자, 사회적 거리 두기, 역학 조사, 선별 진료소, 재택근무와 같은 용어에 차츰 익숙해져 갔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 차인 올해 들어 위기감이 고조됐다.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급속하게 늘었다. 주위 사람들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속출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이 확산세가 빠른 대신 치명적이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18일 0시 기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국민의 30%가 넘는 1635만 3495명이고, 누적 사망자 수는 2만 1224명(치명률 0.13%)이다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됐다. 2020년 3월 시행된 지 75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820일만이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걸어서 간신히 빠져나온 느낌이다. 사적 모임 인원 수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일상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동안 큰 타격을 입었던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풀렸으면 한다.

그렇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아직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재확산이나 가을철 대유행을 우려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제한됐던 일상을 누리면서도 지금껏 해 온 대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지키는 기본 자세는 견지해야 한다.

요즘 겨울을 이겨 낸 나무들이 연초록 새잎을 띄우고 있다. 봄 햇살에 반짝이는 생명의 빛깔은 경이롭고 찬란하다. 우리들 역시 코로나19라는 오랜 겨울을 이겨내고 새 봄을 맞았다.

"…하 연둣빛 새 이파리/ 내가 바로 강철이다/ 엄혹한 겨울도 두터운 껍질도/ 제 힘으로 뚫었으니/ 보드라움으로 이겼으니" (박노해 '강철 새잎' 중)

/송기동 예향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